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10. 02.(목요일) 12:00

배포 2025. 10. 02.(목요일) 12:00

LA한국문화원, 해설이 있는 오페라 '춘향탈옥' 상영

- 10월 22일, 고전 <춘향전> 을 유쾌하게 뒤집은 창작 오페라 상영 -

LA 한국문화원(원장 이해돈)은 한국의 예술의전당(SAC)과 공동으로 10월 22일,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 예술의전당 시리즈'의 하나로 오페라 <춘향탈옥>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예술의전당 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춘향탈옥>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전 속 캐릭터를 새롭게 각색하고 현 시대의 이야기로 참신하게 녹여낸 작품이다. 즉, 주인공 '춘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곳곳에 유머와 위트를 포진시켜 웃음을 자아내는 신세대 버전 <춘향전>인 셈이다.

<춘향탈옥>은 성악가의 대사와 노래를 외국어로 들어야 했던 기존의 오페라와 달리, 관객들이 작품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 우리말로 공연한다. 향단리와 방자가 부르는 “춘스러우면 어떠냐” 아리아 제목처럼, 웃음과 해학이 돋보이는 명대사와 노래 가사들이 달콤한 멜로디에 실려 전해질 때마다 관객들은 이 작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춘향의 원작이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한 만큼, 막걸리보다 더 걸쭉하고 진한 전라도 사투리가 우리말 노래와 연기를 더욱 신명

나고 실감나게 만든다.

인터미션(중간 휴식시간) 없이, 90분 동안 진행되는 짧은 러닝타임(공연시간) 또한 이 공연의 특징으로 그간 길고 어려운 오페라 감상에 지친 관객들도 <춘향탈옥> 공연 영상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춘향탈옥>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무대 미장센도 기대된다.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리즘과 상징적인 소도구로 구현된 무대, 그리고 현대적인 라인을 살리면서 조선시대 전통의 감성을 담은 의상디자인으로 관객들은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남원의 정취를 영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상영회 전에 현재 USC 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채주원씨가 오페라에 대한 해설을 곁들일 예정이다.

시놉시스

탈옥 후 춘향이는 어디로 향했나

변사또는 춘향을 몹시 사랑하고 만다. 오직 춘향이란 생각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춘향에게 연애편지만 쓰고 앓아 있다. 혼자서 춘향을 독차지 할 요량으로 춘향을 옥에 가둬 버린 변사또. 그러나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춘향이 아니다! 춘향은 탈옥을 감행하고, 향단이도 그런 춘향을 따라, 얼씨구나 하면서 남원골을 빠져 나간다.

탈옥을 감행한 춘향이 어디로 갔겠는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몽룡을 찾아 한양으로 향하는데. 그런데 몽룡의 꼴이 심상치 않다.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는 몽룡은 과거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몰골로 춘향을 맞이하고. 아이고, 참! 산 넘어 산이구나! 춘향과 향단은 몽룡을 방에 가둬 두고 공부를 시키는데... 몽룡을 공부시키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등장인물

■ 변사또 - 바리톤

미혼. 춘향의 마음을 얻으려고 (가장 낭만적인 방법으로) 편지쓰기를 멈추지 않음. 남원골의 곡식을 모조리 거둬들임. (훗날 춘향이와 먼 산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며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 첫사랑에 실패했음. 첫사랑은 연상의 연인. 본인이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혼인을 해 버림. 그래서 그 연상의 연인의 눈과 닮은 춘향의 눈을 보고서는, 마음을 빼앗김. 고시촌에서 춘향이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책상에 부적처럼 붙여놓고, 고시공부를 함. 그러고는 고시에 합격한 후 춘향을 보기 위해 정말 남원골로 내려옴. 의지의 남성. (권력으로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미 그 생각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인물. 짝 막혔음.) 그리고 변사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이랄까! 하지만 그러한 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함.

■ 춘향 - 소프라노

정말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도 보통이 아님. 짓대 있는 사랑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짓대 있는 사랑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함. 책을 많이 읽어서 지적임. 몽룡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함. 순수함은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로맨티스트 몽룡에게 빠져듦.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아주 폭발적임. 그러한 내적인 힘이 표면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인물.

■ 몽룡 - 테너

인간적인 매력이 많고 참 따뜻함.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흘러넘침.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음. 낭만가이면서, 자유로운 영혼. 집안이 좋은 것에 비해 머리는 영 안 좋음. 공부 머리가 없어서 매번 과거시험에 낙방함. 그쯤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한데,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사랑은 열정적으로 함. 자기 감정에 솔직한 인물임.

■ 향단 - 콜로라투라

춘향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함. 똑똑함. 그리고 스스로도 본인이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무척 잘 알고 있음. 어떻게 보면 춘향보다 더 적극적인 여성으로 보임.(실제로 역할 자체가 그러함.) 춘향이 옥에서 탈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물이며, 춘향이 몽룡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게끔 제일 큰 역할을 함. 아주 당찬 여성.

■ 방자 - 바리톤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춘향이가 차라리 변사또와 이어지기를 바람. 평범한 사람이면서, 현실에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속편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마음이 변함. 다시 춘향과 몽룡이 잘 이어지기를 바람.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인물. 겉으로는 변사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랑에 대해서 변사또에게 알려주기도 함.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님. (그렇게 보이는 것 뿐!) 향단이 만큼,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인물. 극 중에서 방자도 무척 멋있게 보여야 함. 꼭 현실적인 것을 따른다고 해서 속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방자도 매력적인 인물.

■ 월매 - 메조소프라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이라고 생각함.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춘향을 적극 지지해 주는 인물)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진지함. '사랑'은 숭고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함. '사랑'에 대해서는 진중한 자세를 가졌음. 어찌 보면 그러한 면을 지닌 월매의 모습을 보고 춘향도 '사랑'에 대한 숭고함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음. 매 장면마다, 월매는 들뜨지 않은 인물이고, 춘향, 향단, 몽룡의 감정이 들떠 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기도 함. (때론, 너무 진지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반어법적인(아이러니한)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함.) 이 작품에서 가장 똑심 있는 감정을 가졌다고 봐야 함. 아주 고상한 인물. 낭만적이면서도 일상의 유머도 겸비함. 많이 중요한 인물.

■ 마을사람들 / 포졸들 / 암행어사

- 기존 춘향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을 새롭게 조명했음. 춘향은 (아주 적극적인 인물로) 가만히 앉아서 몽룡이 출세해서 본인을 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인물.
- 방자는 한양에 가서 몽룡과 얘기할 때는 남도 사투리를 쓰지 않지만 유독 남원에서는 사투리를 쓰는 경향이 있음

<춘향탈옥> 음악 리스트 Music Credit

프롤로그

1. 사랑이 언제부터 죄였더냐 (Arioso: 변사또)

-
- 1 막 광한루, 춘향이와 몽룡이 단오날에 그네를 탔던 곳
 2. 사랑을 책으로 배웠구만 (Aria and Chorus: 월매, 마을사람들)

-
- 2 막 옥과 옥 바깥 그리고 옥에 딸린 헛간
 3. 내가 무슨 똥개도 아니고 (Recit.: 춘향)
 4. 춘향아, 춘향아 (Aria: 변사또)
 5. 몽룡아, 몽룡아 (Aria: 춘향)
 6. 아무도 모르게 (Aria: 변사또)
 7. 촌스러우면 어떠냐 (Duet: 향단, 방자)

-
- 3 막 한양, 몽룡의 방
 8. 나는 너에게로 기운다 (Duet: 춘향, 몽룡)
 9. 사랑은 (Aria: 월매)

-
- 4 막 1 장 변사또의 방
 10. 내 발자국 소리 (Cavatina: 변사또)
 11. 우물 같은 사랑 (Aria: 변사또)
 12. 사랑 그제 강낭콩이요 (Aria: 방자)
 - 2 장 옥중
 13. 내 사랑 (Aria: 월매)

-
- 막간극 한양, 몽룡의 방
 14. 나 다시 (Cavatina: 몽룡)
 15. 환한 날 (Aria: 몽룡)
-

5 막 1 장 옥중

16. 촛불과 옥수수 (Aria: 변사또)

17. 나무껍질 (Duet: 춘향, 향단)

18. 촛농 (Aria: 방자)

19. 그네 (Duet: 춘향, 몽룡)

2 장

20. 내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Recit.: 변사또)

21. 국수먹자 (Finale)

제작진 소개

대본 / 윤미현



2019년 제9회 벽산희곡상 <목선>

2019년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텍사스 고모>

2016년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대통령상 <철수의 亂>

2012년 한국희곡작가협회 신춘문예 당선 <우리 면회 좀 할까요?>

작품

<텍사스고모>, <장판>, <철수의 亂>, <평상>, <크림빵을 먹고 싶었던 영화>

작곡·지휘 / 나실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음대 디플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 수료

현) 전남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

작품

오페라 <나비의 꿈>, <검은 리코더>, <빨간 바지>, <박희광>,

발레 <처용>, <오월바람>, 음악극 <BEYOND LIFE>, <가가멜의 밤>,<

<호모루덴스>, <극장 앞 독립군>, <명색이 아프레걸>

연출 / 김태웅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수료

현) (사)더뮤즈오페라단 연출/제작감독

작품

오페라 <배비장전>, <버섯피자>, <봄봄>, <마일즈와 삼총사>,

<스타구출작전>, <러브베틀>, <치즈를 사랑한 할아버지> 외

연극 <광수생각>, <마조엔 새디>, <음식물 쓰레기 마왕>,

<매직도깨비> 외

뮤지컬 <웰컴투 마이월드>, <블루다이아몬드> 기획제작 외

출연진 소개

변사또

공병우
Bar.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프랑스 마르세이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수상

뮌헨 국제콩쿠르 대상

서울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 수상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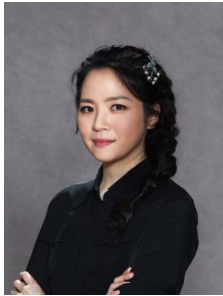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집시공작의 까르네로 백작역

라캄빠나 쏘레르씨의 마에스트로역

춘향

박하나

Sop.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University of Cincinnati 석사 및 박사졸업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수상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코벳오페라 콩쿠르 1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Great Lakes region 우승

작품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보엠>,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돈조반니>, <자이데>, <팔스타프> 등 다수 출연

몽룡

서필

Ten.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전공만점 졸업
현)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수상

베냐미노 질리 기념 국제콩쿠르 1등과 특별상 수상
각종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

작품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등지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토스카>, <라트라비아타> 등 30여 편의 오페라에 다수출연

월매

김선정
M. Sop.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
브람스 재단과 오스카 리터 재단 장학생

경력

오라토리오 다수 연주와 독창회,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KBS방송교향악단 등 다수 교향악단과 협연

작품

2000년 예술의전당과 베를린오페 공동 기획 <심청> 출연
오페라 <보체크>, <오텔로>, <리골레토>, <카르멘>
<마술피리>,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살로메> 등 다수
출연

향단

윤성희
Sop.



성신여대 성악과 졸업

이태리 볼로냐 국립음악원 성악과 수석 졸업

수상

이탈리아 치타 디 볼로냐, 치타 디 테라모 국제콩쿠르 1위,
레온까발로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 수상

작품

오페라 <마탄의 사수>, <파르지팔>, <마술피리>, <아이다>,
<달이 물로 걸어오듯>, <돈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주역, 서울시향, 군산시향, 경기필하모닉, TIMF, 대구DIO 등
과

협연 및 <메시아>, <천지창조>, <전쟁미사> 등 다수 출연

방자

윤한성
Bar.



한양대학교 졸업

작품

오페라 <잔니 스키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양상블

마을여자

엄선영
배우



작품

오페라 <버섯피자>, <배비장전> 외 다수
뮤지컬 <루나틱>, <달동네 콤플렉스>, <우연히 행복해지다>,
<의자뺏기> 외 다수
연극 <한 번 더해요>, <운빨 로맨스>, <나의 ps파트너>,
<러브액츄얼리> 외 다수

이준혁
배우



포졸, 마을사람

작품

뮤지컬 <삼총사>, <두 도시 이야기>, <체스>, <올숙업>,
<작업의 정석>
연극 <쉬어매드니스>, <미스터 신>

김영환
배우



포졸, 마을사람

작품

연극 <수상한 흥신소>, <발칙한 로맨스> 외 다수

표근톨
배우



암행어사, 포졸, 마을사람

